



## 주요 선진시장

### 미국

뉴욕증시는 20일(현지시간) 스페인 등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고개를 들며 나흘만에 하락 마감. 이날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스페인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안을 승인했다는 호재가 있었지만, 스페인 동부의 발렌시아가 중앙정부에 긴급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투자심리가 얼어붙었음. 여기에 스페인 정부가 내년에도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 역시 악재로 작용

### 유럽

유럽 주요 증시는 20일(현지시간) 일제히 약세로 마감.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이날 최대 1000억 유로에 이르는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 지원안을 최종 승인했지만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부채위기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불안감이 커짐

## 주요 이머징 시장

### 중국 상해종합


상해종합지수가 나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음. 거래금액은 545억위안으로 줄었음. 지난 18일 발표된 6월 주택가격이 9개월 만에 전월비 상승세로 전환함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악재였음. 중국 국토자원부와 주택건설부 측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엄격히 단속하고 부동산 용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긴급 통지했으며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조치에 대해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 또한 중신증권과 해통증권 등 대형 증권사를 비롯해 주요 기업들의 상반기 순익 감소와 하이센스의 실적 추정치 하향 등의 요인도 부담. 철도운송(-2.1%), 석탄(-1.9%), 목재/가구(-1.3%), 해운(-1.3%), 농업(-1.1%), 항공(-1.1%), 증권(-1.1%), 은행(-1.1%), 금속(-1.0%), 보험(-0.9%), 음식료(-0.9%) 등 최근 상승폭이 컸던 업종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 부동산 관련 주도 동반 급락. 반면 헬스케어, 전력, 여행, 통신설비, 섬유/의류 등은 올랐음

### 홍콩H

홍콩 H지수는 이틀 연속 강세. 미국 경기선행지수,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추가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음. 또한 중국의 철도 건설 확대와 원전 재개 등 정부 인프라투자에 대한 기대가 강화됐고 최근 인텔, IBM 등 IT주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 그러나 중국 중앙정부가 부동산 규제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지수의 추가 상승폭은 제한. 휴대폰 인터넷 사용자 증가에 힘입어 차이나텔레콤(+3.0%) 등 통신주가 이틀 연속 급등했고 최근 연일 급락했던 통신장비업체 중흥통신(+3.5%)도 큰 폭 반등. 자동차 판매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관련주도 상승세로 마감. 반면 보험과 은행주는 약세를 보였음

 인도

센섹스지수는 나흘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고 주간단위로는 2주 연속 약세. 정치적 불안요인과 경기부양책 지연 우려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헬스케어(-1.5%), 은행(-1.4%), 건설자재(-1.2%), 화학(-0.8%) 등이 지수 약세를 주도. 반면 자동차(+1.7%), 광업(+0.3%) 등이 강세. 외국인은 2주 연속 순매수세를 유지했음

 러시아

RTS지수는 지난 5거래일간 상승 랠리를 멈추고 1.6% 급락. 주간단위로는 4주 연속 강세를 유지. 직전일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 국제 유가 약세로 에너지주가 크게 내렸고 은행, IT업종 등도 약세를 나타냈음

 브라질

보베스파지수는 4거래일 만에 2.1% 급락. 최근 금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금융, 화학, 음식료, 유통 등에 집중. 스페인 국제금리 급등 소식도 부담이었음.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보인 반면 전력주가 크레딧 스위스 등 해외기관의 투자의견 상향으로 급등했음

국내 주식 및 채권 시장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가 장중 1820선을 두고 등락을 거듭한 끝에 보합으로 마감. 전일 뉴욕증시는 경제지표 부진 소식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어닝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내투자심리도 완화된 모습을 보이며 보합권에서 출발. 외국인인 1900억원 사들였지만 프로그래미 1151억원 매도우위를 나타냈고 개인과 기관도 1735억과 318억원 순매도세를 나타내는 등 코스피 지수는 방향성을 잡지 못한채 182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보합으로 마감


 **채권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여부 조사 여파에다 정부의 부정적인 하반기 경기전망이 겹치며 국고채 지표물 금리가 결국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 CD금리도 나흘 연속 내림세를 이어감

상품 및 환율시장

 **원·달러시장**

스페인 은행권 구제안 확정을 앞두고 전일대비 0.60원 내린 1,138.50원에 출발. 유로화 약세와 더불어 코스피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달러화가 소폭 레벨을 높혀 전일대비 2.10원 오른 1,141.20원에 거래를 마감.달러화는 1,138.50원에 저점을, 1,141.30원에 고점을 기록

 **환율시장**

유로화는 스페인과 그리스 우려가 재부각돼 미국 달러화와 엔화에 각각 2010년 6월과 2000년 11월 이래 최저치로 급락. 스페인의 은행권 이후 지방정부 부실로 인한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과 수개월 안에 스페인 국가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강등될 수 있다는 예상으로 안전자산 매입세가 강화

 **상품시장**

유가는 미국 달러화가 유로화에 큰 폭으로 오른 데다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이 나와 7영업일 동안의 강세를 접고 하락.금가격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 보유고를 늘렸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유입돼 소폭 상승.옥수수, 밀은 미국에서 여전히 가뭄이 진행 중이며 큰 날씨 변화가 없는 한 가격은 계속 상승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 가격이 상승

각국 주요 일정

- 23일: 유럽> 7월 유로권 소비자대지수 (n/a, -19.8, -19.8)
- 24일: 美> 5월 주택가격지수 MoM (n/a, 0.5%, 0.8%) 유럽> 7월 PMI 제조업 (n/a, 45.3, 45.1) 7월 PMI 서비스업 (n/a, 47.3, 47.1) 中> 7월 HSBC플레이 PMI 제조업 (n/a, n/a, 48.2)
- 25일: 韓> 7월 소비자대지수 (n/a, n/a, 101)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n/a, n/a, 16.9%) 6월 신규주택매매 MoM (n/a, 0.3%, 7.6%) 日> 6월 수출 YoY (n/a, n/a, 10.0%) 6월 수입 YoY (n/a, n/a, 9.3%)
- 26일: 韓> 2분기 GDP YoY (n/a, 2.4%, 2.8%)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8.0만, 38.6만) 6월 미결주택매매 MoM (n/a, 0.9%, 5.9%) 6월 내구재주문 MoM (n/a, 0.4%, 1.1%)
- 27일: 韓> 6월 경상수지 (n/a, n/a, \$3,611.8M) 6월 상품수지 (n/a, n/a, \$1,754M) 美> 2분기 GDP 연간화 QoQ (n/a, 1.5%, 1.9%) 中> 6월 선행지수 (미확정) (n/a, n/a, 99.93) 日> 6월 국내 CPI YoY (n/a, n/a, 0.2%)

본 자료는 판매자를 위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펀드의 판매나 권유를 위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며, 어떠한 계약이나 약정의 근거가 되거나 투자자문으로 인식될 수 없습니다. 펀드투자는 경제 및 시장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투자 가치는 시장상황에 따라서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한BNPP 자산운용의 서면동의 없이 본 자료를 투자자나 제삼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복제, 발송, 전달하는 것을 금합니다.

문의 : 김희정 : heejung.kim@shbnppam.com, 류지은 : jeeeun.ryu@shbnppam.com, 유성희 : seonghee.yoo@shbnppam.com, 정승연 : seungyeon.jung@shbnppam.com

판매사 내부직원용